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주 임 신 부 정 재 준 사도요한 보 좌 신 부 정 혁 요셉 (청년부) 강 인 석 F.하비에르 (유·초·중·고등부) 박 경 석 보스코 수사 (사회사목) 전 교 수 녀 정 은 자 한나 (원장) 김 미 리 에블린 (유·초등부) 정 선 아 세레나 (중·고등부/청년부) 꿀 벌 유치원 최 향 숙 베로니카 수녀 요셉어린이집 김 아 람 소화데레사 수녀 총 회 장 황 태 영 프란치스코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 알 림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미사 재개 지침
 - 재개일 : 8월 9일 ~ 당분간
 - 참례 가능 신자 : 본당 신자, 공간별 10%
 - 미사 후 성체 분배 없습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오늘은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 있습니다.
- 다음 주(10월 03일) 군인 주일 2차 헌금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첫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

- 일 시 : 10월 02일 / 오전 06:30
-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신 마리아' 장영 강복 및 성수 예식을 합니다.

● 교 육 / 강 좌

- 예비신자 교리 신청 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 받습니다.

● 사목국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무료)

-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 장소 :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 문의/예약 : 727-2139 (월~금 10시~18시)
- 전화 상담 : 727-2137 (월~금 10시~17시)

● 거리두기 4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 시간 및 안내 사항

	토요주일 19:00	새벽 0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09/26	21~24 기타구역	1~5 구역	6~11 구역	12~15 구역	16~20 구역
10/03	1~5 구역	6~11 구역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꼭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X"로 표시한 자리는 비워두고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가톨릭의 교계 제도

- 계급이 아닌 다양한 직무입니다.
- 성직자 : 교황(베드로 사도의 후계자), 주교(사도들의 후계자), 신부, 부제(주교의 협조자)
- 평신도 : 교회와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위한 사명 수행
- 수도자 : 복음 3덕(순명, 청빈, 청결)을 서원하고 봉헌 생활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주일(10/03)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18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09월15일 ~ 09월21일)

• 교 무 금	7,280,000원
• 주일헌금	3,617,500원
• 헌미헌금 2차 헌금	847,000원
• 시설헌금	김00100만원
• 감사헌금	김정희10만원 정00 10만원 김준성10만원 한갑남20만원 이영자50만원 임분화10만원 김옥순20만원 한희숙10만원 김중순 5만원 이인화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독 서
09/26	권태희	장익근 김명선
10/03	유명진	장익근 권태희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09/26	박용환	박승환	김영배 이운영	오광운
10/03	박형순	이운영	박용환 김인기	장인홍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모든 형제들” -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획책

82. 문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인 - 사마리아 주민 - 인 반면 다친 사람은 유다인 - 유다 주민 - 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사랑에 대하여 성찰하는 데에 이 세부 묘사가 지극히 중요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교 의식에 물든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유다인 들은 그들을 불결하고 혐오스러우며 위험한 이들로 여겨 왔습니다. 실제로 멸시할 만한 민족들이라고 일컫는 히브리 본문은 사마리아에 대하여 심지어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또한 이들은 “스켄에 거주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집회 50,26)이라고 덧붙입니다.

83.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실 것을 청하시자 사마리아 여자가 왜 이처럼 통명스럽게 대답하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요한 4,9) 예수님을 불신하게 할 비난거리를 찾던 사람들이 찾은 가장 심한 모욕은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요 “마귀 들린 자”(요한 8,48)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과 유다인의 이 자비로운 만남은 모든 이념적 조작을 부정하는 강력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경계를 넓히고, 온갖 편견과 역사나 문화의 장벽과 모든 사소한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우리 사랑의 힘에 보편적 차원을 부여합니다.

이방인의 호소

84. 끝으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인 다음과 같은 복음 구절도 기억합니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듯이 맞아들였다”(마태 25,35).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이들의 비극을 당신의 일로 여기시는 열린 마음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출 때에 출생과 출신 지역을 따지지 않고 다른 이들과 자신과 동일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동성에 들어서면 마침내 다른 이들이 ‘자신의 혈육’(이사 58,7 참조)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85.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차원 곧 초월적 차원도 지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버림받거나 배척받은 모든 형제자매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마태 25,40.45 참조). 실제로 신앙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도록 북돋우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지닙니다. 믿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모든 인간 존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과 함께 무한한 존엄을 인간 존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그러하기에 어느 누구도 그 보편적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궁극적 근원, 바로 하느님의 내밀한 생명인 그 근원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모든 공동체 삶의 기원이며 완전한 모범인 세 위격께서 이루시는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진리에 관한 성찰에 힘입어 신학은 언제나 풍요로워집니다.